

바느질 협업자 노트: 박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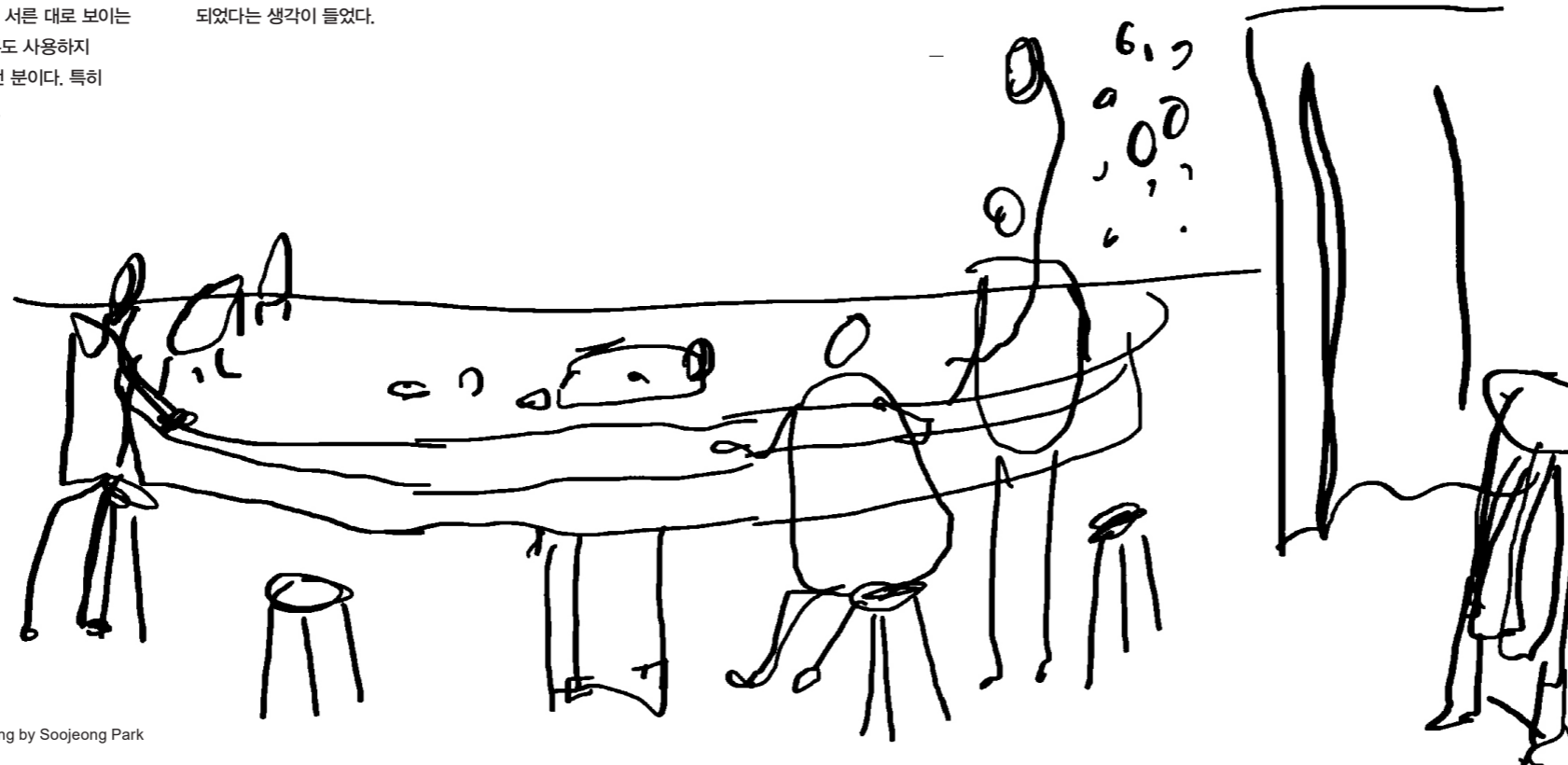
2020년 더레퍼런스 버전에서는 2019년 금천예술공장 스튜디오 버전과 다르게 커다란 원형의 원목 테이블이 바느질 작업을 위해 마련되었다. 금천스튜디오 공간은 다소 협소해서 다수의 관객이 작업 테이블 주변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나는 아직도 금천스튜디오에 놓여 있던 사각 테이블 바로 옆 커다란 창문의 높이까지 자란 화초가 주던 쾌청한 느낌이 생생하다.

금천에서 어느 추운 날 참여자의 매우 두꺼운 코트에 국가통제코드를 바느질할 때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빠지지 않아 공공대며 실을 당겼던 것을 기억한다. 여러 외투에 리본을 달아주며 알게 되었는데 두꺼운 원단은 바늘을 어렵잡아 반 정도 넣었다 빼면 바느질이 손쉽게 된다. 자신의 옷을 선뜻 맡기는 모험을 하는 관객들 대부분은 미술 종사자나 학생이었다. 그래서 가끔 나이가 지긋한 관객이나 미술인이 아닌 관객이 옷을 맡기면서 해주었던 이야기를 다른 협업자에게 전하면서 즐거워했었다.

그중 유난히 기억에 남는 관객은 이야기로만 전해 들은 장애인 등급제에 대해 중증 장애인들의 입장을 토로했던 중년 남성분과 서른 대로 보이는 한 남자분으로 탈의실에 준비된 주름치마는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자 바로 치마로 바꿔 입고 전시를 관람했던 분이다. 특히 치맛단 아래 보이던 무지개 무늬 양말이 인상적이었다.

집 근처를 산책하다 전시를 발견하고 우연히 전시장을 찾은 주민 몇 분이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보통 전시를 한다는 정보를 온라인에서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우연히 찾아와준 동네 관객이 있다는 사실은 협업자들 사이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이야기 나누는 기억이 있다. 사실 이번에는 지난 금천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옷에 리본을 달아주었기 때문인지 전시 후반에 리본을 달아주었던 참여자 몇 명만 기억한다. 바늘이 푹푹 빠지는 폭신한 후리스를 맡겼던 학생, 닥스 브랜드 옷옷 안쪽에 국가통제코드를 달아간 관객, 체크 남방 옷깃 안쪽에 매달아 간 분과 오랜 만에 만난 학교 동기들 등 글로 적다 보니 많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참여자 몇 명은 타임-라인 밴드는 마치 옷 디자인의 일부였던 것처럼 기존의 옷과 잘 어울렸다.

남겨진 국가통제령 코드가 달린 참여자들의 옷 사진을 다시 보다 보니 참여자 옷장에 내가 바느질 했던 옷들이 어떻게 있을지 궁금해졌다. 내 상상과 다를 수도 있지만 내 옷장 안 국가통제코드 리본처럼 자연스럽게 그들의 옷장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검정 타임-라인 밴드가 이제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로잉: 박수정 drawing by Soojeong Park

A Sewing Collaborator Note: Soojeong Park

A large round wooden table was used in the 2020 exhibition at the Reference,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2019 Seoul Art Space. At the Seoul Art Space, because of its relatively small exhibition area, participants couldn't really stay too long around the square table that we used. Even so, there was a bright and fresh atmosphere owing to the large window next to the table, and a plant as tall as the window itself.

Once, on a very cold day, while sewing the black *time-line* ribbon bands through the cloth of an audience member's thick coat, I had trouble pulling the needle through. I soon learned that it's much easier to sew when the needle pokes through the cloth about halfway. Most

of the participants who seemed to be pleased to hand over their clothes were either students or those working in the field of art. I had more fun speaking with elderly participants or those working outside of the art field, and I often discussed stories they told with other collaborators.

One of the most memorable participants was the middle-aged man who talked about the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in support of the severely disabled. And there was a young man in his thirties who, upon learning that no one was using a flared skirt available for participants to wear during the sewing work, changed into the skirt and then walked around the exhibition halls. The combination of his rainbow colored socks and the skirt were impressive.

In 2020, some of the neighbors of the Reference gallery visited. They told us that while they were strolling around the neighborhood, they encountered this art event. The collaborators were glad to see unexpected audience members who walked in without any information about it. As it happened, I performed more sewing this time than at the Geumcheon exhibition. I thought I'd be too busy to remember any of the participants. But, when I look back on it, I recall more people than I thought I would. I remember a student with a soft fleece jacket, a person with DAKS' brand blazer, another person with a check print shirt, and classmates whom I haven't seen recently. In some cases, my sewing work looked like part of the clothing's design.

While examining the photos we took, I keep wondering where the clothes with the *time-line bands* are now. Although they could wind up in unexpected places, their *time-line bands* might be kept in their closets just like mine. It feels like, in a way, the *time-line bands* are forming a community in various locations.